해인사·팔만대장경 6·25 전란서 수호

김영환 장군 공적비 세운다

◇故 김영환 장군

폭격명령 거부 공훈기려
대장경 경판 본뜬 황등석
가야산서 9월중 제막식

6·25 한국전쟁 당시 해인사에 대한 폭격을 거부, 잿더미로 변할 뻔한 해인사 도량과 고려대장경을 지켜낸 김영환 장군의 '팔만대장경 수호공적비'가 오는 9월 해인사에 건립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18일 "97년 공적비 건립을 추진했다가 경제난 등으로 지연된 김영환 장군공적비 건립이 해인사의 수용으로 이뤄지게 됐다"면서 "공군본부와 협의해 9월중순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로 250㎝, 세로 215㎝ 크기의 공적비는 대장경 경판 모양을 본떠 황등석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비문 문안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스님이 맡았다.

김 장군은 51년 9월 18일 당시 제1 전투비행단 작전참모를 맡고 있던 중 해인사가 공비 1개 대대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보고를 들은 미 제5 공군비행고문단의 해인사 폭격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 해인사와 고려대장경의 소실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때 해인사가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것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뒤 퇴각하지 못한 인민군 1천 여명이 해인사를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벌였기 때문. 소탕작전에 들어 간 국군은 1951년 12월 18일 해인사를 폭격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지원 편대장이었던 김영환 대령은 출격한 뒤 명령에 불복, 불시착을 감행하면서까지 해인사를 구해냈다.

이로 인해 김대령은 군사재판에까지 회부됐으나 전쟁에서의 공훈이 인정돼 무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21년 서울에서 출생한 김 대령은 6.25 때 최초의 국내인 전투조종사로 많은 공을 세워 조종사의 상징이 된 영화 '빨간 마후라'의 실재 주인공이기도 하다.

1954년 1월 준장으로 진급했으나 두 달 뒤 34세의 나이로 F-51 전투기를 몰고 강릉기지로 향하던 중 악천후로 인해 추락, 순직한 그는 공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을지, 충무 무공훈장과 미 비행훈장, 공로훈장 등을 받았다.

한편 해인사 폭격 명령 불복종에는 생존해 있는 전 공군 참모총장 장지량 중장도 동참했다는 주장이 있어, 그의 공덕비도 함께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국보(32호)는 물론 세계문화 유산으로까지 지정된 팔만대장 경판 및 장경각은 6.25전쟁 전에도 2차례나 결정적인 멸실 위기를 만났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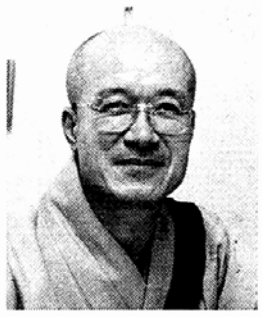
첫번째는 조선 초기부터 180여 회에 걸쳤던 일본의 끈질긴 요구에 조정이 자칫 이를 내어 줄 뻔한 일. 두번째는 임란 때로, 왜구는 성주까지 점령해 경판 약탈 직전이었으나 소암대사의 승병과 곽재우 장군 등의 의병들이 가야산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입을 막았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화장문화 널리 알릴터"

서울 동작구불교련 혜철스님



국립묘지 호국위령재 추진
소년가장·불우시설등 위문

서울 동작구 불교연합회는 단합이 잘 되기로 유명하다. 지역 사찰 스님들끼리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불교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전통을 10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동작구 불교련은 다른 사암련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

동작구 불교연합회 회장 혜철스님(청련사 주지)은 "화장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불교연합회도 올 하반기부터 화장유언 남기기 운동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우선 불교연합회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인 뒤 반응이 좋으면 구민들로 확대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동작구 불교연합회가 추진하는 독특한 사업 하나가 또 있다. 혜철스님은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충효사상을 재정립하고 호국불교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불교의식으로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수륙대법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1980년 창립된 동작구 불교연합회는 67개 사찰로 출발해 지금은 80여개 사찰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각 종단 사찰들이 함께 꾸려가고 있으며, 동작구 내 모든 사찰이 연합회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동작구 불교연합회는 90년대 중반부터 사회활동에 눈을 돌렸다. 매월 두 차례 각 사찰에서 쌀을 걷어 관내 불우이웃에게 전달해오고 있고,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영정사진 찍어주기 활동도 벌여오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교도소나 불우시설을 위문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연합회는 회원사찰 스님들과 신도들의 자질 함양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몇 년간 불교의식 강의를 자체적으로 진행했고, 현재는 교양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의는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정기모임에서 이뤄지며, 참여율이 대단히 높다.

혜철스님은 "연합회 회원 사찰 스님들은 종단은 서로 다르지만 불교 발전을 위해서라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업규모를 더 확대해 사회참여 기회를 더 높일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서산 가야산 불교문화촌 건립

충남도 보원사지 복원·전시관·상가 등 짓기로

충남 서산 가야산 일대에 '불교문화촌'이 들어설 전망이다.

충남도는 18일 내포(內浦)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 명찰 수덕사가 있는 서산 가야산 일대에 민자 150억원을 포함, 모두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불교문화촌 건립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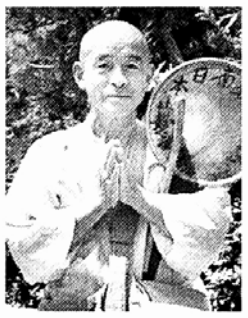
전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불교문화촌에는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및 정비사업으로 불교 역사문화 전시관, 불교문화 체험관, 수도관, 불교관련 기념품점 및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민속자원 개발를 위해 전통옹기 시연장, 서산 박첨지놀이 전수회관, 궁중요리 전시관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6세기경 해상활동을 통한 국제문화적 성격을 보여주는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고려초에 창건된 당간지주를 비롯한 여러점의 보물로 유명한 보원사지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도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연내에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불교문화촌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도시생활에 찌든 일반인들이 심신수련과정을 직접 겪어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작년 전국도보순례 日 이와다 스님

올해도 "과거사 참회" 고행



"한국은 한자를 전해준 왕인 박사를 비롯, 불교 유교 등 일본에 많은 도움을 준 은인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에 대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승복 차림으로 '사죄'와 '사은(謝恩)'이라고 적힌 가방을 메고 우리나라 전국을 걸어서 순례해 주목을 받았던 이와다 류조 스님이 1년 만에 다시 '일본 과거사 사죄'를 의해 고행에 나섰다.

한달여의 일정으로 전국 순례길에 오른 이와다 스님은 첫날인 18일, 지난 1월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남자를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고 이수현씨가 잠들어 있는 부산시립공원묘지를 찾아 일본 불교식 재를 올렸다.

올해 66세인 이와다 스님은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하루 15㎞ 이상씩 걸어 전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 대중이 모이는 곳에서 염불과 함께 과거사 반성, 사죄의 의식을 행할 예정이며, 내달 15일 광복절에는 독립기념관에서 3일간 재를 올릴 계획이다. 내년에도 순례에 나서겠다는 이와다 스님은 도쿄 시부야의 일련교 일본산묘법사 소속이다.

김재경 기자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

경남도 27곳에 33명

경남도는 16일 해인사 등 27곳의 유명 관광지나 문화 유적지에 3주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문화유산 해설사' 33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해설사들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주부나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전직 공무원들로, 그동안 진주전문대에서 가야권 문화와 사찰 및 불교문화, 임진왜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들이 배치된 곳은 합천 해인사와 밀양 표충사, 양산 통도사, 남해 충렬사, 남명 조식선생 사적지 등이다. 김재경 기자

전주교도소 봉불식

전주교도소 봉불 대법회가 5일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와 전주 연화사(주지 원경) 후원으로 열렸다.

태고종 전북종무원 상임부원장 승천스님과 김제분회원장 철환, 익산 도덕사 주지 청림, 전주 연화사 주지 원경, 재소자 불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부처님 점안식에 이어 재소자 불자 유남철씨 등 17명의 육법공양, 철환·청림스님의 천수바라춤 및 나비춤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정재열씨외 19명의 불자들은 이달의 불자상을 수상했으며, 일광사·연화사 신도들은 선풍기 2대와 떡·과일 등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날 승천스님은 설법을 통해 "재소자 불자들은 오늘 부처님을 모시는데 그치지 말고 나의 마음속에 앉으나 서나 잠을 자나 항상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업장소멸과 무명 해탈을 위해 정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선원사 박대통령 천도재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는 8월 4일 4천일기도 500일재를 맞이하여 고 박정희 대통령 천도재 및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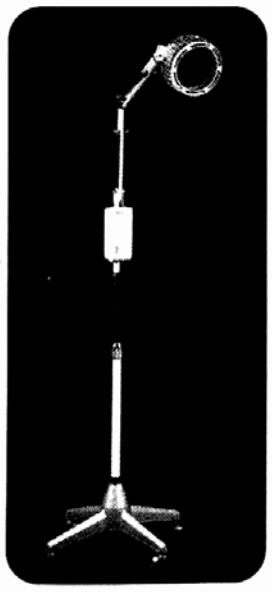
이번 천도재는 오전 10시 사시불공을 시작으로 11시 30분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 초청 법회, 12시 30분 고 박정희 대통령 내외 천도재 순으로 진행된다.

선원사는 고 육영수 여사가 1976년 선원사지를 지정하는 등 선원사 복원에 공헌한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번 천도재를 계획했다.

고려대장경 판각성지인 선원사는 현재 4차 발굴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선원사 복원을 위해 천일지장기도와 4천일 기도를 매일 봉행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생명의 빛 神燈(신등)의 秘密(비밀)공개!
(T.D.P치료기)
- 중국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
신등이란? 특정전자기파, 생체 에너지파, 슈퍼원적외선파, 마이크로파, 반도체파, 초단파 등 11개 파장이 동시에 발생되어 그 열파장은 피부깊숙히 80mm까지 흡수되고 공진작용과 에너지 농축으로 무질서한 세포 파괴된 염세포를 바르게 정리 재생 회복시켜주며, 그리고 면역체계 상승과 모세관 혈행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병변부위를 신속히 정상회복 시켜준다. (그 비밀은 바로T.D.P에 내장된 Black Disk의 신비에 있다.)
블랙디스크(Black Disk)란 TDP치료기의 핵심장치로서 인체구성의 기본 원소인 30여종 무기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필수품(증상별)
1.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에 심한 피로와 충혈로 침침하고 기관지염으로서 깊은 잠을 못자는 분
2. 피부증상(악성 제균성 피부질환, 지루성 피부염, 습진, 무좀 화장이 잘 안받는 거친 피부)
3. 혈액순환 장애로 머리무거움, 숨참, 가슴이 뛰고 답답함, 현기증, 손 발 배가 냉한 증상 혀
4. 신장기능 장애로 손 발 얼굴 부종이 잦고 소변에 이상이 있는 이뇨 장애자 신장
5.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증으로 악성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6. 뼈관절 증상(허리, 무릎, 목, 골반) 각종 통증으로 땡기고 절인 증상 등
7. 전립선 기능장애와 생식기능 장애로 마음이 쓰이는 분은 꼭 필요함
8. 부인과 분야(냉증, 세균성 염증, 월경이상과 통증, 자궁 내막염)
9. 고질적인 치질·치루·탈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 전세계 발명품 금상수상
(중국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 임상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겸 가정용)
한국 수입 품목 허가 번호 (01-506)
한국 각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200여곳 설치 사용중
■ 미국F.D.A에서 특정 자기파 (T.D.P) 치료기 인정 (K875052)
■ 유고 의료박람회 금상, 벨기에 부르셀박람회 은상
■ ISO (9001)획득, 한국 95년도 보건 복지부 인정 수입
金賞
세계발명품 박람회 금상수상

※ 각종자료 - 무료 우송함
◆ 전국 대리점 모집 중 ◆
(수입원) (주) 휴먼라이프 상담무료전화 : 주,야 080)522-2464 / H.P : 019)614-2550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 육임래정비법 -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알아보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17시까지 출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잠석하시면 이 책을 더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쉽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당임의 시간만 결쳐 보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뿐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점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이나 항의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물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인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어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낳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치료 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언제부터 치도가 있게 될 것인지, 치료가 순조로울지 더딜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따라지게 알아 깨쳐질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방所를 떠나 부재중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은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은 것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무속인·스님·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양장제본·금박·1960페이지·미색용지·음각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탐방,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임상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瑟卜子 換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동래식물원에서 산성쪽으로 100M쯤의 기원정사 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육임 세밀정단법 출시중
도서출판 卜 問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승진사·구재사·시험사·구직사·결혼사·임신사·가정사·이주사·소송사·질병사·매매사·여행사·도난사·심인사·상면사·채용사·투자사·승부사·가격사·농경사·묘지사·기후사